

6·2 민심

추대통령 향후 정국운영

4대강·세종시 수정 불가피

'정권 심판' 민심 견제에 주도권 약화 개헌카드 꺼내 밀어붙이기 나설수도

6·2 지방선거 결과가 거대 여권에 대한 강력한 민심의 견제로 나타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과 충청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풍으로 보수층의 결집이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의 반응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구상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민주당의 압박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거대 여권을 견제하는 민심도 살피야 한다는 점에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레임 덕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점에서 야당에 밀리기 시작하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이 6·2 지방선거 투표일인 2일 오전 국립서울농학교에 마련된 총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당초 구상한 대로 추진해 나갈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인 선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현재로서도 여당이 대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침은 크게 변화된 것 없이 '중도실용'과 '시스템 선진화'에 맞춰져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성공적인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며 "사회 안정과 통합으로 합의된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중도실용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강조하며 교육·토착·권력 비리의 적결과 사법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패배에 따라 이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등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통해 지방선거 패배의 충격을 극복하고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과 정국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여권의 행동반경이 좁아질 전망이다"이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특성과 정치 환경 등을 고려하면 국정 운영 방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하토야마 日총리 결국 사임

정책혼선... 8개월만에 하차 오자와 간사장도 동반 퇴진

후텐마 기지 이전과 정치자금 문제로 퇴진 압력에 직면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하토야마 총리와 함께 사임압력을 받은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도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참의원 양원총회에 출석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오자와 간사장에게도 사의를 청해 수락받았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후텐마 이전 문제로 사민당이 연립에서 이탈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를 물러난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해 8·30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작년 9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취임했으나 경험 부족과 정책 혼선,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우왕좌왕한 끝에 8개월여만에 하차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오키나와 후텐마기지 이전안에 합의한 뒤 이를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민당수인 후쿠시마 미츠호 소비자당상이 서명을 거부하자 파면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2일 도쿄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저를 떠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과 함께 동반 사퇴했다. /연합뉴스

사민당이 이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연립 정부에서 이탈하고 주초 발표된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당내에서 국회운영과 7월 참의원선거를 치르기 어렵게 됐다며 참의원을 중심으로 하토야마 총리에게 퇴진 압력을 가중해왔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까지 "그동안 신명을 다해 직무에 충신했다. 국민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사임 압력에 완강히 저항했으나 이날 아침 돌연 입장을 바꿔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8개월여만에 정권의 '투 톱'인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민주당은 새 총리가 될 당 대표와 간사장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4일 총리 후보를 선출하고, 7일엔 조각을 발표하는 등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후임 총리로는 민주당 안팎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韓美 서해서 대규모 연합 훈련

내주 對北 무력시위 성격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다음 주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2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한-미 양국이 확실한 대북 억지 의지를 과시하지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무력시위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북방, 덕적도, 어청도 해상에서 진행된다. 시위에 참가할 양국 전력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 7000t급)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강습 상륙함을 비롯한 우리나라 한국형 구축함

(4500t급·KDX-II)과 1800t급 잠수함인 손

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미측 전력은 3일 부산으로 입항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7함대의 핵심 전력인 조지 워싱턴호는 니미즈급 핵추진 항모의 6번함으로 1992년 취역했다. 이 항모는 만재배수량이 10만 4000t에 달하며 FA-18 전투기와 조지경보기(E-2C), 헬기 등 90여 대를 탑재하고 있다.

양국은 함포 및 항공사격,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사격 등으로 훈련을 한다. 합참은 이 훈련계획을 국립해양조사원과 해경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p>승촌시리 승도</p> <p>엔도라도리조트</p>	<p>시골어스 매일판매가: 5월 31일부터 (최신형 관리서비스)</p> <p>15,000원 (주말) / 18,000원 (주말) (월요일과 수요일-목요일 - 11월 21일까지)</p> <p>104,000원 (주말) / 153,000원 (주말)</p>
--------------------------------------	---

SINCE 1988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재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알면 딱 100% 방수방수!!

최상, 지하실, 옥상, 주차장, 욕실 등 방수용 요하는 곳

최신 공 도색 방수공법까지 책임방수를 합니다

특히 불 타는 곳이나 방수공법은 방수 방수입니다

장숙바라장어

신선한 장어, 신선한 재료, 신선한 맛

062-383-1110